



## 농촌진흥청, 몽골 정부와 농업기술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

-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기술 협력 제도화
- 몽골 최초 벼 재배 성공 등 성과 확산 기반 마련
- 몽골 농가 소득 향상·한국산 농자재 몽골 수출 확대 기대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‘농촌진흥청-몽골 농업부,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’을 7월 9일,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은 한-몽골 정상회담(7.9.)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 개발(KOPIA, 코피아)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,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.

\*KOPIA(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):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.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

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마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.

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▲작물 품종 개발·보급, 종자 증식 기술, 안전 먹거리 재배·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·품질 향상 ▲가축 유전능력 개량·관리,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▲한국산 농약·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▲작물·축산 유전자원의 교류, 보호,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▲기후변화 적응 기술,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.

농촌진흥청은 코피아(KOPIA) 몽골 사업을 통해 완전배합발효사료(TMF) 기술을 현지에 보급해 왔으며, 2025년 10개 군 150개 농가로 축산 시범사업을 확대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유생산량을 2025년 13.8L에서 2028년 16.5L로 약 20% 끌어올리고, 축산 농가 소득을 2025년 대비 25%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.

또한, 2025년 몽골 역사상 약 40년 만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한국 품종 벼 ‘진부울’의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소 동결정액과 수정란, 동물의약품, 양파 재배용 농기계 등 다양한 한국산 농자재의 몽골 수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.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“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쌓아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의 성과를 제도적 틀 안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며, “몽골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농업 관련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이경희 (063-238-1160)
		담당자	연구사	유지현 (063-238-1165)
				